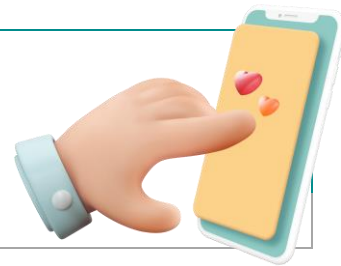


# 인도만 전년동월대비 증가

Monthly 휴대폰/부품 [24년 11월] 스마트폰 판매량 잠정치 | 2025.01.03



투자의견

Overweight

Analyst 김록호 roko.kim@hanafn.com

RA 김영규 kyg1019@hanafn.com

## 글로벌 스마트폰 11월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2%, 전월대비 10% 감소한 1억 268만대 기록

- 인도 외 전 지역에서 판매량 감소하면서 전년동월/전월대비 감소세 시현
-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판매량 1억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
- 지역별로는 인도만 전년동월대비 6% 증가, 중국/미국/유럽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9%, 5%, 2% 감소
- 인도만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시현했는데, 대다수 업체들이 재고 처리를 우선시한 영향과 일부 업체들의 신모델 출시 효과임
- 유럽은 1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. 향후 감소세 지속 및 확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

## 중국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9%, 전월대비 6% 감소한 2,197만대 기록

- 올해 광군제가 작년보다 이른 10월 말에 시작해 수요가 앞당겨지면서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시현
- 또한 화웨이의 Mate70이 전작대비 2개월 가량 늦어진 11월 말에 출시된 영향도 있었음
-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시현하였으나, 화웨이의 Mate70의 판매가 개시되는 12월부터는 다시 성장세로 전환할 가능성 상존
- 화웨이의 Mate 60 판매량은 초기 6개월간 중국 내 전체 판매량 중 약 5~6% 가량을 차지했었음
- 이구환신 정책에 스마트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12월 판매량에는 해당 효과 확인 가능할 것으로 예상
- 점유율 1위(18.8%)는 Xiaomi로 신모델 조기 출시와 더불어 광군제 기간동안 판매량 호조가 기여했음
- Apple은 전년대비 부진한 보조금과 로컬 OEM들과의 경쟁 심화로 전년동월대비 28% 감소한 374만대. 점유율 2위(17%)
- 3위는 화웨이이며, 점유율 16.6%를 기록. Pura 70과 Mate 60의 판매 호조가 주효했음

## 미국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5%, 전월대비 21% 감소한 1,017만대 기록

- 전년과 달리 블랙 프라이데이 연휴가 늦어지면서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12월에 발생했음. 이에 따라 전년대비 감소세 시현
- Apple 판매량은 iPhone16의 전작대비 낮은 수요로 전년동월대비 5%, 전월대비 29% 감소
- 삼성전자는 전년동월대비 1%, 전월대비 5% 감소. A15 판매 호조 및 폴드6 프로모션이 사이버 먼데이 매출 지원을 일부 상쇄
- 모토로라는 전년동월대비 8%, 전월대비 2% 증가. 최근 \$200~299대의 중저가 시장에서 판매 호조 지속중

## 인도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6% 증가, 전월대비 48% 감소한 1,082만대 기록

- 대다수의 업체들이 재고 처리를 우선시하면서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시현. 또한 일부 OEM들의 신모델 출시 효과도 주효했음
- 성수기 종료로 전월대비 48% 감소했으나,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시현한 것은 긍정적
- Vivo의 판매량은 Y 시리즈의 신모델이 판매 호조를 기록하면서 전년동월대비 23% 증가. 이에 따라 점유율 1위(19%)를 기록
- 삼성전자의 판매량은 S 시리즈와 F 및 M 시리즈가 판매량을 견인하면서 전년동월대비 3% 증가. 점유율은 2위(18%)를 기록
- Xiaomi의 판매량은 Redmi의 판매 호조에도 전년동월대비 16% 감소. 점유율은 3위(14%)를 기록

## 유럽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2% 감소, 전월대비 1% 증가한 1,396만대 기록

- iPhone16의 수요 부진과 독일 등 일부 시장 내 iPhone 공급 문제로 인해 1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
- Apple의 판매량은 수요 부진과 공급 문제로 전년동월대비 8% 감소. 그럼에도 점유율은 30%로 1위를 유지
- 삼성전자의 판매량은 S24 FE 및 A35/A55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대비 0.12% 감소. 점유율은 29%로 2위를 유지. 전년동월대비 보합세로 마무리했으나, 시장 전체 판매량 감소로 점유율은 1%p 증가
- Xiaomi는 Redmi 13 시리즈 판매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3% 증가. 점유율은 19%로 3위를 유지

**Apple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8%, 전월대비 19% 감소한 2,067만대 기록**

-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의 낮은 업그레이드율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시현했으나,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유지중
- 특히 11월은 미국 내 AI(Apple Intelligence) 도입 후, 영향이 온전히 반영되는 달임에도 미국 내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5% 감소했음. 다만 Apple Intelligence의 기능들이 순차적으로 추가되고 있는 만큼, AI 효과를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판단
- 16 시리즈의 출시 3개월 누적 판매량은 3,718만대로 15 시리즈의 동기간 판매량을 3% 하회. 이는 16 시리즈의 출시가 전작대비 이를 빨랐던 영향이 있음에도, 전작대비 판매량 하회는 부정적
- Pro Max와 Pro의 합산 비중은 67%이고, Pro Max 비중은 38%로 Pro보다 높게 유지

**삼성전자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1% 증가, 전월대비 6% 감소한 1,960만대 기록**

- 판매량은 미국 및 유럽에서 보합세를 유지하였으나, 인도에서 3%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시현
- 갤럭시 S24 시리즈 11개월 누적 판매량은 3,466만대(울트라 1,580만대, 플러스 677만대, 기본 1,210만대)로 S23 시리즈의 2,941만대(울트라 1,356만대, 플러스 539만대, 기본 1,046만대)를 18% 상회
- Z6 시리즈 5개월 누적 판매량은 490만대(플립 281만대, 폴드 209만대로)로 Z5 시리즈의 520만대(플립 330만대, 폴드 191만대)를 6% 하회

**12월 판매량부터 Apple Intelligence 도입 이후 iPhone16 판매량 추이와 중국 이구환신 정책 효과 확인 필요**

- 글로벌 전반적으로 재고 소진 진행중. 부진한 출하량대비 판매량은 상대적 선방
- 중국은 이구환신 정책이 12월부터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상존해 해당 효과가 핵심 관전 포인트임
- 미국은 11월부터 AI 도입에 의한 효과가 반영되기 시작한 만큼 향후 판매량 추이가 중요
- 유럽은 1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. 기저 효과 종료되었기 때문에 향후 증감 여부를 지켜볼 필요 있음
- 12월 이후 체크 포인트는 AI 서비스 확대에 따른 iPhone16 판매량 변화 및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 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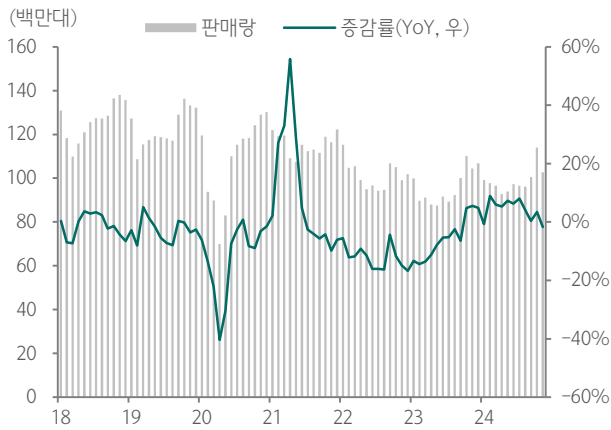
**데이터 요약본**

<b>글로벌 판매량</b> <b>1억 268만대</b> • MoM -10%, YoY -2%	미국 판매량	• MoM -21%, YoY -9%
	중국 판매량	• MoM -6%, YoY -9%
	인도 판매량	• MoM -48%, YoY +6%
	유럽 판매량	• MoM +1%, YoY -2%
<b>삼성</b> <b>1,960만대 (MS 19%)</b> • MoM -6%, YoY +1%	미국	• MS 22% (전월 18%)
	중국	• MS 0.7% (전월 0.6%)
	인도	• MS 18% (전월 18%)
	유럽	• MS 30% (전월 29%)
<b>Apple</b> <b>2,067만대 (MS 20%)</b> • MoM -19%, YoY -8%	미국	• MS 59% (전월 66%)
	중국	• MS 17% (전월 19%)
	인도	• MS 9% (전월 12%)
	유럽	• MS 30% (전월 31%)
<b>Xiaomi</b> <b>1,363만대 (MS 13%)</b> • MoM -8%, YoY -6%	중국	• MS 19% (전월 17%)
	인도	• MS 14% (전월 15%)
	유럽	• MS 19% (전월 19%)

**글로벌 판매량 1억대 초과 지속 중이며, iPhone 16 판매량 추이를 지켜봐야 함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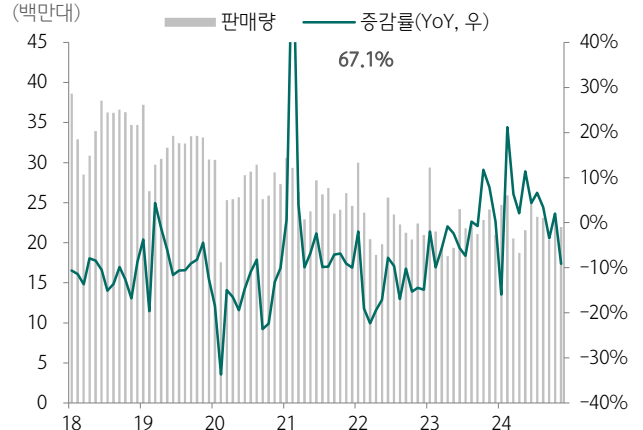
- 인도는 축제 시즌 종료에도 불구하고 신모델 출시 및 재고 부담 완화 기조로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시현
  - 중국은 전년대비 광군제의 이른 시작으로 수요가 이전되었고, 일부 신모델 출시 지연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
  - 미국은 11월부터 AI 도입에 의한 효과가 반영되기 시작한 만큼 향후 판매량 추이가 중요
  - 유럽은 1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. 기저 효과 종료되었기 때문에 향후 증감 여부를 지켜볼 필요 있음
  - 이후 체크 포인트는 AI 서비스 확대에 따른 iPhone16 판매량 변화 및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 효과
- 
- 삼성전자, Z6 시리즈의 출시가 전작대비 2주 가량 빨랐음에도 3달 누적 판매량은 전작대비 6% 하회
  - Apple의 iPhone16의 출시가 전작대비 이를 빨랐음에도 3개월 누적 판매량은 전작대비 3% 하회
  - Xiaomi, Huawei 등 중국 업체들 전년동월대비 판매량 성장 지속중

도표 1.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및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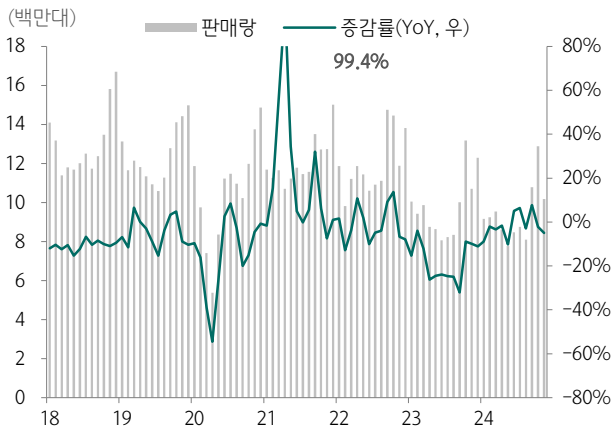
자료: Counterpoint, 하나증권

도표 2.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 및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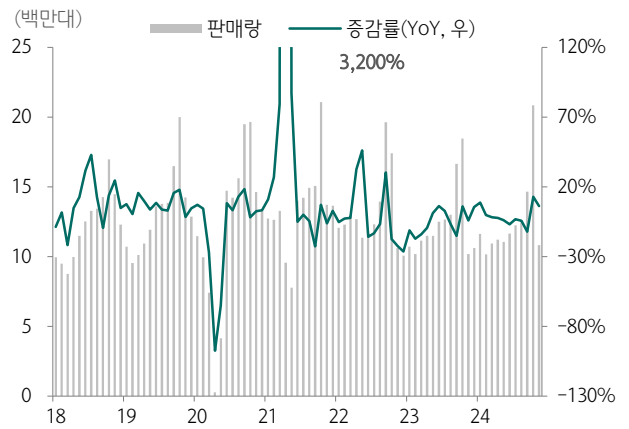
자료: Counterpoint, 하나증권

도표 3. 미국 스마트폰 판매량 및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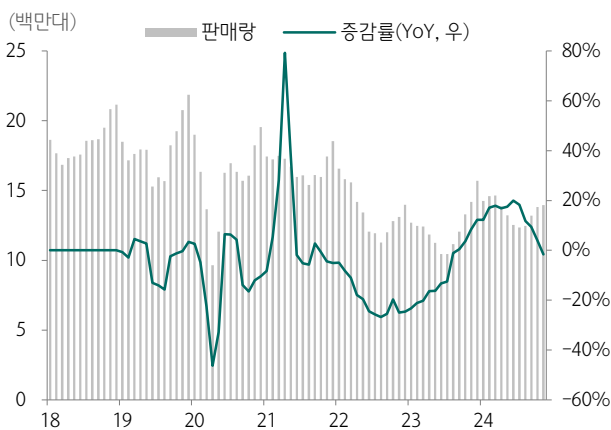
자료: Counterpoint, 하나증권

도표 4. 인도 스마트폰 판매량 및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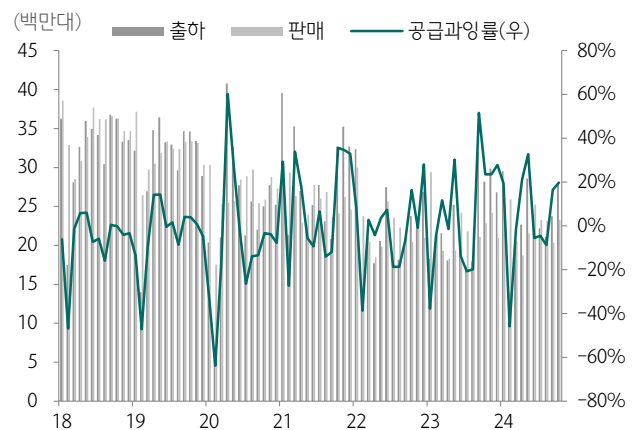
자료: Counterpoint, 하나증권

도표 5. 유럽 스마트폰 판매량 및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추이



자료: Counterpoint, 하나증권

도표 6. 중국 스마트폰 월별 출하량 및 판매량 비교



자료: Counterpoint, 하나증권

**Compliance Notice**

-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(김록호)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,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.
-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당사는 2025년 1월 3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%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(김록호)는 2025년 1월 3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무 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.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**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**

- **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**
- **기업의 분류**  
 BUY(매수)\_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% 이상 상승 여력  
 Neutral(중립)\_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-15%~15% 등락  
 Reduce(비중축소)\_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% 이상 하락 가능

- **산업의 분류**  
 Overweight(비중확대)\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% 이상 상승 여력  
 Neutral(중립)\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-15%~15% 등락  
 Underweight(비중축소)\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-15%~15% 등락

투자등급	BUY(매수)	Neutral(중립)	Reduce(매도)	합계
금융투자상품의 비율	94.57%	4.98%	0.45%	100%

\* 기준일: 2024년 12월 31일